



정진민 세례자 요한
前 MBC교우회장, 가톨릭상담심리사

| 마음의 재물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3학년 선배의 권유로 ‘넝쿨(VINE)’이라는 교외 동아리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때 대표적인 동아리로는 ‘홍사단’ ‘YMCA, YWCA’ 등이 있었지요. ‘넝쿨’의 정식 명칭은 ‘가톨릭노동청년회(JOC-지오씨)’의 아래 조직으로 ‘크리스천 학생넝쿨회’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에 모여 자유주제로 토론을 한 뒤, 친목의 시간을 갖고, 주일에는 미사에 참여하는 일정이었지만 미사 참여를 강요받지는 않았습니다.

비신자였던 저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예비자 교리수업을 받으며 미사에 참례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걸림돌은 미사 중에 올리는 ‘기도문’들이 저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네가 하는 일상생활과 학교 공부를 성실히 하고 있지 않으면서 무슨 기도를 한다는 것이냐!’라는 자책감과 함께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Do your best, and God will do the rest)’이라는 격언이 제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비자 기간 내내 그런 상태였기에, 수업을 마치고 나서 보좌신부님께 진지한 태도로 “신부님, 저는 기도하는 마음가지가 안 되어서 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반 고백, 반 선언을 하였습니다. 신부님의 대답은 무정하게도 “그렇다면, 그렇게 하거라~!”였습니다.

저는 그 뒤로도 미사 참례를 하면서 절실한 기도의 마음이 되기를 바랐지만, 제 마음은 좀체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미사에 참례하지도 않았고 세례를 받지도 않았

습니다.

그 때를 되돌아보면, 저는 마태오 복음에 나오는 ‘부자청년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모범적인 삶을 살아온 청년이 재산을 버릴 수 없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것처럼, 저는 ‘자만’이라는 마음의 재물을 버릴 수 없어 ‘넝쿨’을 통해 처음으로 저를 부르신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질적인 재물’보다 훨씬 더 큰 재물은 바로 ‘나의 삶은 우선 내가 먼저 알아서 해야 한다’라는 ‘자만의 재물’과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교만의 재물’이었음을 뒤늦게야 깨달았습니다. 어떤 신부님의 책에서 ‘진정한 겸손은 나와 다른 이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구절을 읽은 뒤였습니다.

현재 세계 인구수는 75억 명이 훨씬 넘습니다. 75억여 개의 크레파스와 같이 그 쓰임은 차이가 있지만 이 우주에서 하나뿐인 색깔로 존재하는 고유하고 존귀한 생명체로서는 모두가 평등하다고 여겨집니다. 하느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똑같은 개인을 복사 창조하신 일이 없으셨으니 그 무한한 생명 창조의 신비는 감탄을 넘어 경외감을 자아내지 않습니까? 유명한 화가의 그림처럼 세상에 하나만 있는 유용한 것은 우리 모두가 지극히 가치 있게 여깁니다. 사람의 그런 가치 판단 능력은 이미 하느님이 개개인에게 불어넣어주신 독존(獨存)의 가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향은 언제 쓰나요?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지만 가톨릭교회에서도 향을 피웁니다. 그러나 늘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사 때는 제대를 축성할 때, 봉헌예물을 축성할 때 주례 사제가 분향하고, 주례자 축복과 신자들을 향한 축복, 성찬 전례 중 성체와 성혈을 거양할 때는 향 복사가 향을 칩니다. 이 외에는 부활성야 미사 때 부활초에, 기타 특별 미사 중에는 복음 낭독 전에 성경을 향해 분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례 미사 때 고별예식에서 사제가 관에 분향합니다.

글 「교회상식 속풀이」 | 바오로딸 발행